

2주기 평가 준비 '베그덕'

'계획'은 있는데... 추진기구 공백 상태 언제까지 계속되나

10월 말까지 출범하기로 되어있던 대구구조개혁평가 2기 위원회가 11월이 된 현재까지 출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1월 4일 기준). 2기 위원회는 트랙제도를 포함한 2주기 평가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추진기구이다. 종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2기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2주기 평가를 위한 준비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2기 위원회 출범

당초 2기 위원회는 추석을 전후로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주상 기획협력처장은 중요한 기구만큼 인선을 고심한다는 이유로 10월 말까지 2기 위원회 출범을 유예했다.

10월 18일, 총장과 함께하는 간식 이벤트에서 신문사와 접촉했던 전 처장은 2기 위원회와 관련해서 "약 2주 후에 연락 달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된 기일인 11월 첫째 주, 전 처장은 신문사의 연락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2기 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평가감사팀 역시 "더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여러 인선을 총장과 각 처장들이 협의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생들이 알 수 있는 2기 위원회 준비상황은 한 달여 전과 마찬가지로 "인선을 고심하는 중"이라는 내용뿐이다.

핵심 추진기구의 부재

2기 위원회는 앞서 말했듯이 트랙제

도와 같은 학사구조개편을 포함해서 2주기 평가에 맞춘 각 부처의 전략을 종합하여 추진하는 핵심기구이다. 즉, 총무처, 기획협력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홍보처의 5개 부처가 가진 전략과 기획이 2기 위원회의 손을 거치는 것이다.

앞서 10월 18일, 전 처장은 2기 위원회를 "11월 전에 무조건 출범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한성대신문 517호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도 "중요한 만큼 인선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던 만큼 2기 위원회는 상당히 시급하고 핵심적인 기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제한 해제가 발표되고 1기 위원회의 임기가 끝난 지금, 2기 위원회가 출범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핵심 추진기구의 부재로 직결된다.

한편 현재 상황에서 2기 위원회의 출범이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

재한다. 한 관계자는 최근 정국이 불안하다는 점을 들며, 향후 정세에 따라 교육부의 정책이 크게 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향후 정세를 보고 그에 맞는 2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갈 길은 먼데...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트랙제도를 포함한 '2주기 대구구조개혁평가 추진계획'이라는 차는 마련되어 있는데, 정작 그 차의 운전대를 쥘 '2기 위원회'라는 운전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2기 위원회가 지체되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 다양하게 열리는 학교행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상한 총장 역시 11월 3일 개최된 독서 골든벨 축사에서 "당분간

학생들이 즐거운 기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생회와 협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학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대학은 '재정지원제한 해제' 대상이라는 것이 발표된 이후, 한성학원 설립 71주년과 개교 44주년이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학내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했다. 학교축제와 커피쿠폰 나눠주기 행사, 취업창업페스티벌, 독서 골든벨과 사진공모전, 중간고사 응원 총장 간식배부 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범람하는 행사 속에 2기 위원회의 출범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2017년의 우리대학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지면안내

보도

패션디자인전공
졸업준비위원회
영수증 관리 미비 드러나

02

사회

박근혜는 하이하라



03

사람사

"한 편 한 편이 승부다"



04

학술

대중을 기만한 나치의 선전 전략



05

문화

비틀즈, 그들이 정말 꿈꾸던 것들



06

기획

2016년 대동제 다시보기



08

동정란

정성훈(전자정보공학)교수

정 교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세 편의 논문 "지문인식 성능향상을 위한 CNN 기반 새로운 특징점 추출", "p33 Network의 Delay 조합에 따른 암 세포의 상태 변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동작곡에서 곡의 조성과 반복구성을 위한 후처리 방법"을 발표했다.

노광현(IT응용시스템공학)교수

노 교수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6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 IoT 야외체육기구를 전시했다.

기자사령

임

이한신(경영 2)
박원경(국문 1)

퇴

박혜미(경제 2)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트랙정보 공개

학부 구성 동일, 트랙 구성 일부 변경돼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트랙의 명칭과 설명이 공개되었다. 이 사안에 따라 한성대신문사가 학내 규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트랙명칭은 한성대신문사가 기준에 제공받은 5월 20일보다 한 달 늦은 6월 22일에 변경된 개편안임을 확인했다. 기획협력처는 이에 대해 "6월에 명칭을 확정하여 입학관리팀에 송부했다"고 답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각 트랙학부는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 패션산업학부 ▲ICT 디자인학부 ▲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IT 융합학부 ▲스마트 경영학부, 기획협력처가 5월 20일에 신문사에 제공한 학사구조개편안과 다르지 않은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상세한 트랙 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인지응용언어 트랙이 사라지고, 대신 한국어 교육 트랙이 추가되었다. 다문화 인터랙션 트랙은 글로벌 언어정보 트랙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사회과학부 역시 트랙의 변경이 있었다. 경영관리 트랙, 디지털경영 트랙, 세무경영 트랙이 사라지고 벤처경영 트랙, 기업경영 트랙, 회계재무 경영 트랙이 생겼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트랙은 글로벌

ICT 디자인 학부는 당초 인터페이스/MMD 코디네이션 디자인 트랙과 전사무대/환경/공간 디자인 트랙이 인터페이스 코디 디자인 트랙과 VMD·전시 디자인 트랙, 환경·전시 무대디자인 트랙으로 통합·분화되었다. 기계전자공학부는 기존 6개의 트랙에서 기

학부(과)	전공	트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영미문화 / 글로벌언어정보
		한국어교육 / 문학문화컨텐츠 글로벌역사 / 역사문화컨텐츠 정보문화 / 라카비뷰비즈니스
사회과학부*		국제통상 / 글로벌비즈니스 경제 · 산업분석 / 금융 · 데이터분석 공직진출 / 정책관리 부동산자산관리 / 스마트그린산업 기업경영 / 벤처경영 회계 · 재무경영
		뉴미디어 광고 ·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상 · 애니메이션디자인 제품 · 서비스디자인 패키지 · 브랜드디자인 인테리어 · 코디디자인 VMD · 전시디자인 게임 일러스트레이션
기계전자공학부		전자 / 정보시스템 기계설계 / 기계자동화
IT융합학부		지능형로봇 / IoT프로젝트 사이버보안 / ICT융합엔터테인먼트

▲ 6월 22일자로 구성 및 명칭이 변경된 트랙

계설계 트랙, 기계자동화 트랙, 전자 트랙, 정보시스템 트랙의 총 4개의 트랙으로 나누었다. IT 융합학부도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트랙이 ICT융합 엔터테인먼트 트랙으로 명칭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입학처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학부 구성은 동일하나 트랙은 기존 학사구조개편안에서 다소간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획협력처는 "명칭 확정"이라

고 답변하며, 이 학사구조안에서 추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각 트랙에 대한 설명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hansung.ac.kr/home)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단, 아직 구성만 확정되었을 뿐 커리큘럼의 진척도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므로, 각 트랙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는

2차 학사구조개편안 간담회

11월 중에 예정되었던 2차 학사구조개편안 간담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1월 3일, 손성민(경제 4) 총학생회장은 인터뷰에서 "오늘 조세홍 교무처장에게 2차 간담회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조 처장은 2차 간담회의 대상을 학생대표와 전체학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하자고 말했다. 두 간담회 모두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2차 간담회에 앞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11월 1일에는 학내 곳곳에 자보를 붙였다. 자보에는 2차 간담회 때 듣고 싶은 내용을 건의해달라고 적혀있다. 자보를 통한 의견수렴은 8일까지 진행되며, 수렴된 의견은 2차 간담회 준비에 반영된다.

2차 간담회가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 5월이었다. 손 회장은 5월에 열린 1차 간담회에서 2차 간담회를 약속했다. 8월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9월 첫째, 둘째 주 중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9월 둘째 주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내외로 행사가 많은 9, 10월을 피해 조속히 2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5일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손 회장은 11월 예정인 2차 간담회가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9월 1일, 학생지원팀을 통해 1기 위원회에 2차 간담회 요청 공문

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손 회장은 "이상한 총장에게 2차 간담회 관련하여 학사구조 개편안에 대한 확정사항이 없어, 간담회를 개최할 준비가 안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안세연(제품디자인 3) 예술대학 학생회장 또한 학교 측에 학사구조개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7월, 학사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교무처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학생지원팀에서는 조 처장의 해외출장, 보직 교체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대답을 미뤘었다. 그리고 9월, 그는 학생지원팀을 통해 전주상 기획협력처장과 조자연 총무처장에게 연락해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 즉시 면담을 신청했으나 양측 모두 공식적인 답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안 회장은 총무처장의 개인연락처로 연락하여 설명을 들었고, 기획협력처장과는 등록금심의위원회로 직접 찾아가서야 면담을 할 수 있었다.

뒤늦게 이뤄지는 2차 간담회에 대해 각 단체 학생회장들은 유감을 표하며, 2차 간담회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회장과 이주현(한국어문 4) 인문대 학생회장은 "특히 큰 변화를 마주한 인문대와 예술대학의 입장에서 2차 간담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패디 졸준위 영수증 관리 미비 드러나

공금 써도 관리·감독 없어, 감사기구 신설돼야

패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은 졸업 논문 대신 졸업작품패션쇼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패션디자인전공 졸업준비위원회(이하 패디 졸준위)위원들은 졸업작품패션쇼에 필요한 장소대여, 위탁업체 계약, 부수물자 구입 등의 업무를 맡는다. 10월 20일 한성대학교 대나무숲(페이스북 페이지)에 패디 졸준위의 영수증 분실에 관한 제보글이 게시되면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시글들이 차례로 올라와 논란이 됐다.

패디 졸준위는 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10월 26일 진리관 202호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우진(패디 4) 패디 졸준위장은 “영수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저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통장 스캔본과 관련 계약서 및 서류 등을 공개하고 공금 사용에 대한 내용을 이 위원장이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졸업작품패션쇼에는 패디 졸준위 위원 6명 포함 78명이 참가했다. 공고를 통해 선발된 패디 졸준위 구성원들은 위원으로 활동하는 대신 1백만 원의 졸업작품패션쇼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72명의 학생들이 각각 1백만 원씩 총 7천2백만 원을 납부했다. 학과지원금 2천만 원을 포함하여 패디 졸준위는 총 9천2백만 원의 공금을 운용했다.

공금은 이 위원장의 이름으로 된 개인명의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이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과내 자



▲ 이우진(패디 4)패디 졸준위위원장이 공금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치기구로 돈을 운용하는 경우 학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돈을 납부받기 때문에, 조교나 교수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없다. 따라서 패디 졸준위 대표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학생들의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과지원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담당회사와 직접 거래했으며, 그 자리에 과 조교와 본인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이 위원장은 영수증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 “정산하는 과정에서 잉크가 휘발된 영수증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카드로 계

산하여 통장에 거래내역이 기록됐기 때문에 영수증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금인출 및 영수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9천2백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가 공금으로 사용되는데 불구하고, 학과 내 자치기구에 대해서는 감사기구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학생회와 공개기구와 같은 경우, 학생회비 사용 후 대의원총회를 통해 사용 내역에 대해 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패디 졸

준위처럼 학과 내에서 만든 자치기구의 경우에는, 공금을 스스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곳은 패션디자인 전공 한 곳에 불과하지만, 현재 논문 대체로 졸업 작품을 내는 다른 과들 또한 대부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공금 관리에 대한 논란이 또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공금을 운영하는 자치기구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동현 기자 ehdkvk6392@naver.com

#우리학교 #타임라인

한성학원 설립 및 개교 기념 '독서골든벨' 열려

지난 11월 3일, 학술정보관에서 주최한 한성학원 설립 71주년 및 개교 44주년 기념 '독서골든벨'이 상상관 지하 2층 농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독서골든벨은 지난 5년간 열렸던 '독서경진대회'를 대체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독서골든벨은 개인별로 시행을 치르던 '독서경진대회'와 달리 팀을 이뤄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학술정보관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교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 사전접수를 통해 선발된 40팀(6인 1팀) 중 34팀이 참가했다. 출제 도서는 『과학콘서트』(정재승 저)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지글러 저)였다. 이번 독서골든벨 취지에 대해 광동화(학술정보관 학술정보팀) 담당자는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교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고 전했다.

독서골든벨은 예선, 패자부활전, 본선, 결선 순으로 진행되었다. 1등 팀에게 150만 원, 2등 팀에게 100만 원, 3등 팀에게 6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그리고 참가팀 전원에게 비교과포인트를 부여했고 참가팀과 관람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이 있었다. 이날 1등을 한 '연리지' 팀 대표 김은철(행정 2) 학생은 “우승할 줄 몰랐는데 막상 우승을 하니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지난 10월 11일 장애인 체험행사 열려



지난 10월 11일 우촌관 앞 미래마당에서 '희망나루 다장애체험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를 계획한 취지에 대해서 권기만(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성북구지역센터 행정지원반)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비장애인들에게 알리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 ehdkvk6392@naver.com

본교 학생들, 박대통령 퇴진 요구

총학생회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31일 오후 4시에는 창의관과 미래관 사이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약 30명의 학생들이 함께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손성민(경제 4) 총학생회장, 이주현(국문 4) 인문대학생회장, 박찬양(경제 3) 사회과학대학생회장, 김준호(산공 3) 공과대학생회장이 발언에 참여해 각 단대별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학생 개별발언에는 주현

준(컴공 1), 김나현(회화 2) 학생이 참가했다.

총학은 시국선언문에 “좌·우의 이야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근간을 지탱하는 원리와 원칙이 무너졌다”는 현 상황에 대한 규탄을 담았다. 개별발언에 참여한 김나현(회화 2) 학생은 “우리가 분노한 것은 단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다. 그동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꼭두각시 대통령, 박근혜의 무능함이자 국가원수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말했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 31일 미래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읽고 있는 김준호(산공 3) 공과대학생회장

한성아키비움 개관식 및 개교 44주년 기념식 열려



지난 11월 3일 본교 학술정보관의 주관으로 상상관과 아키비움 개관식과 '한성학원 설립 71주년 및 한성대학교 개교 44주년 기념식'이 각각 상상관 1층,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이번 개관식 및 기념식에는 이상한 총장, 손성민(경제 4) 총학생회장, 유승희 성북구 국회의원 등 교내·외 인사들이 참여했다.

한성아키비움은 한성학원 설립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기록들을 선별해 전시하는 곳이다. 개관식 담당자인 학술정보팀의 광동화 팀원은 “학교의 흘러간 역사들을 전

시해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이룬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기념식에서는 '상상관 명칭 공모전', '자랑스러운 한성인상' 등의 수여자들에게 포상했다. 이 총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여름 실시한 교육부평가를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자축했다. 또한 “앞으로 진리관과 창의관을 리모델링할 것이며,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를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본교의 변화될 모습을 설명했다.

박원경 기자 parkkw94@gmail.com

본교, 평선베이(주)와 MOU체결

지난 10월 17일, 상상관 9층 총장실에서 평선베이(주)와 MOU 체결식이 있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상한 총장을 포함한 한성대학교 교직원 9명과 평선베이(주) 장경천 사장과 김상태 팀장, 그리고 평선베이(주)의 공식 대리점 업체인 ㈜씨메트 강경록 대표이사, 권병주 주임이 참석했다.

본교와 MOU를 체결한 평선베이(주)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이루어진 동역학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프로그램을 아시아 최초로 개발한 CAE전문기업이다. 평선베이(주)는 주요 생산 소프트웨어인 '리커다인' 프로그램 21copy(약 31억 원 상당)를 본교에 기증한다. '리커다인'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자동차, 건설기계, 로봇, 항공우주, 프린터, 정밀기계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승식 기획전략팀 차장은 “평선베이(주)로부터 기증받은 '리커다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면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상상관 옆 운동장에서 간식사업 열려



지난 10월 17일 본교 상상관 옆 운동장에서 학생지원팀이 본교 본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간식을 배부하였다. 이상한 총장이 푸드트럭 앞에 줄을 선 학생에게 간식을 먹여주고 있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박근혜는 하이하라” 대학에서 외친 시국선언, 청계광장에서 밝힌 촛불

지난 25일, 국가를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의혹으로만 빛어지던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인정하는 사과문이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26일부터 시국선언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대학생들이 있었다. 단 삼 일 만에 서울 소재 29개 주요 대학 중 22개 대학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6일에는 이화여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연세대를 포함한 6개 대학이 뒤를 이어 27일 발표했다. 28일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9개 대학이 이에 동참했다. 이후 우리 학교와 덕성여대, 명지대 등 대학들이 시국선언을 이어가며 그 불길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는 28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첫 문장이 허울만 좋은 소리라 되었다며 이 문제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자, 민주주의의 상실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서강대는 “상식을 위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최순실 씨의 딸이 재학한 이화여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 그러하다”며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대는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민주

주의를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퇴보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정권은 짧지만, 우리가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길다”며 입장을 강력히 표했다.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특검을 요구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다. 28일 한양대가 발표한 2차 시국선언문은 “특검은 ‘꼬리 자르기’식 특검이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발표된 서울시립대의 시국선언문에도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중립적인 특검을 동원해 최순실을 구속하고 관련자는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새로이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있는 동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선언문도 있었다. 흥대는 차은택, 김종덕 동문에게 “선배님들이 흥의대학교 교정에서 맺은 그 개인적 친분은 흥의대학교 교정을 거니는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어 돌아왔다”며 학교가 권력 사유화의 장이 된 것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나아가 학교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털어놓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동국대는 “동국대 출신인 집권 여당의 수장은 그저 현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나도 연설문을 쓸 때,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발언에 질책을 가했다. 이러한 시국선언을 바탕으로, 민주총괄기투장본부는 29일 청계광장에서 시민 촛불집

회를 주최했다. 주최 측이 추산한 바로는 이번 집회에 약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대학생들 비롯해 연령을 불문한 많은 시민들이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회에 참가한 흥의대학교 학생은 현 상황에 분노해 혼자 거리로 나왔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김종덕과 동문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넘어서 혐오감까지 든다. 차은택 및 사건 관계자들은 책임을 다해 조사에 응해야 하며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에 맞는 처벌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총괄기투장본부는 이번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첫 번째 집회에 불과하다며 11월 12일에 예정되어있는 민주총괄기에 많은 시민들이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문자 기자 answn15@hansung.ac.kr



교내 금연구역 내 흡연, 적절한 제제방안 없어

국민건강 증진법 제 2장 제 9조에 따라서 대학 내 흡연은 불가능하다. 다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발맞추어 2013년도부터 대학가는 흡연구역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흡연자의 흡연권(별다른 제제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하면서 비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도 보장하고자 했다.

금연구역인 탐구관 뒤편 출입구, 탐구관 건물 내 테라스에서도 학생들이 여전히 흡연을 한다. 가천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 등과 같은 경우, 교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또한 활용에 있어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흡연부스 이용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흡연부스가 넓지 않고 밀폐된 공간,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 때문에 흡연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많은 대학에서 흡연구역을 표시해 두고 이용하지만, 그 반경을 벗어난 지역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사실상 학교 측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지만 금연구역 관리를 상당 부분 대학교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상태다. 또한 일부 학교에는 이에 대한 학내 규정조차 없으며, 본교 역사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흡연구역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속한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야한다. 실제로 본지에서

취제한 결과, 올해 성북구 보건소가 단속하여 교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성북구 내 대학교(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 한성대) 중 서경대에서 과태료 1건에 불과했다.(10월 26일 기준) 이에 대해 성북구보건소 단속 담당자는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다.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을 나가실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에 단속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단속을 나가도 일차적으로는 교무처나 학생지원팀에 민원이 들어왔으니 주의하라는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처럼 흡연구역을 지키지 않는 흡연자에 대해 많은 학교에서 방안을 내놓았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혐연권과 흡연권에 관한 논쟁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다. 규제가 항상 올바른 해답은 아니지만 허울뿐인 규제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유동현 기자 ehdvkf6392@naver.com



▲ 탐구관 뒤편 금연구역에 담배꽂이가 버려져있는 모습

이 기자의 정치사건

정치판의 사생결단, 탄핵심판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헌법에 의해 국가원수·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는 법률적인 과정이다. 탄핵심판은 헌법 제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즉시 해당 공무원은 모든 직위가 정지되며,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직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의 경우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현 정부 이전에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된 즉시 모든 직위가 정지되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고건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최근 현 정부는 출범 이래 최악의 정치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지지도가 크게 폭락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탄핵심판이 개시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을 위해 신문을 개시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탄핵을 결정할 수 있고, 동의하는 재판관 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탄핵은 기각되게 된다. 만일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결정까지 대략 2달의 시간이 소모되었으며,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었다.

탄핵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그 직에서 파면시키는 법률행위이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과 같은 공직자들은 굳이 탄핵될 필요 없이, 국민여론에 따라 사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탄핵심판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핵’이란 단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탄핵’이라는 카드는 정치판에서 손쉽게 나오지 않는 비장의 카드처럼 여겨진다. 국민의 신임을 통해 권한을 양도받은 국가원수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한다는 것은 매우 예민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 풍토상 탄핵국면에 접어들면 역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도 예상해야 할 문제다. 만일 탄핵에 실패한다면 그 역풍 역시 만만치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 탄핵을 주도한 새천년민주당은 역풍으로 본디 115석을 가지고 있다가 총선에서 겨우 9석을 확보하며 제 4당으로 주저앉기도 하였다.

어떤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탄핵심판’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다. 만일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면 그 순간부터 탄핵심판이 개시된다. 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처럼 탄핵은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질서에 위배되거나 국민을 배반하여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었을 때만이 성립될 수 있는 정치판의 ‘사생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탄핵심판이 개시되는 즉시 해당 공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평범함을 거부하는 웹소설 작가, '작가G'를 만나다

한편 한 편이 승부다

웹소설은 웹툰, 웹드라마와 같은 웹컨텐츠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방식의 소설이다. 마치 웹툰처럼 특정일마다 일정분량의 소설을 연재하는 방식의 웹소설은, 최근에 런칭한 것에 비해 소위 '역대 작가'들을 다수 배출해내 웹컨텐츠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메이저 웹소설 플랫폼 중 하나인 카카오페이지에서 10만이 넘는 뷰를 기록한 「아임 낫 프리스트」를 연재하고 있는 웹소설계의 유망주, '작가G'를 만나보았다.

Q.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가

초등학교 시절, 도서관에서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를 읽었다. 그때부터 '나도 이런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해서 많은 소설들을 읽고, 또 쓰기 시작했다. 그 후 아마추어 소설 연재 사이트인 '에프월드'에서 연재했던 「스나이퍼」가 인기를 얻어 정식 출판함으로써 프로로 데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출판하고 나니까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왜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판매성적도 부진했고, 일단 종이책이라는

스타일 자체가 나랑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때부터 인터넷 소설을 양분하고 있는 사이트인 '조아라'에 가서 다른 작품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중간 중간 여러 작품이 출간되었는데, 물론 모두 다 판매성적이 좋지 않았다. 계속 마땅한 성적이 없자 결국 지난 겨울에 정말 죽을 각오로 딱 한 달만 철저히 심해서 신작을 연재하자고 결심했다. 그 후부터 매일매일 3만자씩 써가면서 작품을 연재했다. 그렇게 연재하니 독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눈여겨보던 출판사인 '제이플러'가 웹소설을 해볼 생각이 없다는 제안을 했고, 지금처럼 카카오페이지에서 웹소설 연재를 시작했다.

Q. 본인 작품에 대해서 말해달라

「아임 낫 프리스트」는 오컬트적인 존재와 전투를 벌이는 어반 판타지(urban fantasy) 소설이다. 주인공이나 주요인물들에게 재패니즈 애니메이션의 요소들을 적용하고, 액션신에 힘을 실어서 10대 독자들의 취향에 맞췄다.

작품의 모티브는 몬스터탄과 같은 오컬트를 다루는 외국 드라마였다. 항상 이런 오컬트물들을 보면 주인공이 신부나 심령사냥꾼과 같은 전형적인 인물이었지만, 뭔가 다른 형태의 주인공이 있다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과 싸웠던 역병의사였다. 제목도 '난 신부는 아니지만 그들과 싸운다'는 의미로 지은 것이다.



▲ 「아임 낫 프리스트」의 표지 인물

Q. 웹소설 작가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은 자기가 편한대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몇 시에 일어나든지 어디에 쓰든지 하루에 할당된 연재분만 채우면 된다. 다만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루에 할당된 연재분은 써야한

다는 것이다. 숙련된 작가라면 1시간 정도로 연재분량을 채우는 편이지만, 여행을 간 다거나 하는 일에는 아무래도 제약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반권 정도의 연재분을 미리 비축해두는 편이다.

Q. 웹소설은 기존의 장르소설과 어떻게 다른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치한다. 작가가 기존 장르소설의 장르를 선택해서 연재하는 거니까. 하지만 기존의 장르소설이 종이책의 형태로 권마다 나오고, 웹소설과 같은 경우는 한 편 한 편 연재하는 연재의 형식이라서 방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웹소설 같은 경우는 편단위로 보게 되기 때문에 한편 한편으로 승부를 봐야한다. 이 때문에 웹소설은 한편을 한권처럼 써야한다.

Q.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첫달 수익은 1,100만 원 정도 팔았다. 그 중에서 출판사가 가져가는 돈을 제외하고 작가에게 들어오는 수익은 450만 원이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이 정도는 못 버는 축에 속하고, 소위 역대작가들은 정말 수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Q. 최근 성공한 웹소설 작가들이 집필한 소설작법서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람들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업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작품을 구상하는 창의력이다. 남들 이야기만 듣고 따라가서는 좋은 작품이 나오기가 힘들다.

Q. 웹소설의 성장배경과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근본적으로는 흥보와 포맷의 문제다. 웹소설들은 대체적으로 흥보할 수 있는 창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무엇보다 모바일 등의 휴대기기를 통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포맷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또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도 한 몫 한다. 예전에는 한 작가의 작품을 보려면 아예 책 한권을 구입해야했지만, 웹소설은 그냥 간단하게 한편 한편씩 보면 된다. 앞으로 웹소설은 중국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다지 인기가 없어도 보는 사람 자체는 많게 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웹소설의 전망은 대체로 밝다고 생각한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한성인SIDE

"웹툰, 나에게 가장 즐겁고 편한 일"

일상생활에 소소한 즐거움을 주기도, 탄탄한 스토리로 영화 시나리오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 웹툰. 홍수민(애니제품 4) 학생은 웹툰 작가이다. 현재 카카오페이지에서 '옥탑방 마왕성'을 연재중이며, 최근 대학만화애니메이션최강자전 만화부문에서 '달을 보는 개'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Q.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달을 보는 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린 시절부터 동물들과 함께 해온 만큼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감정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주인공을 사람이 아닌 동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감정에 주목하는 만화를 그려보자는 생각에 '달을 보는 개'를 그리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Q. 어떻게 웹툰 작가를 꿈꾸었나?

중학생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다. 디즈니부터 일본 애니메이션까지 만화에 관련된 모든 것이 좋았다. 당시에는 막연했던 것 같다. 만화가 좋다는 생각에 만화로 입시를 치렀고, 우리학교 애니메이션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애니메이션과 웹툰 중에서 고민을 하기도 했다. 회사생활 경험을 위해 들어간 광고 회사에서 연출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 여럿이 하는 팀 작업이 많은 애니메이션에 비해 웹툰은 오롯한 내 생각을 연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웹툰 작가를 꿈꾸게 되었다. 웹툰 작가라는 꿈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사소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즐겁고 편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Q. 카카오페이지에서 '옥탑방 마왕성'이라는 웹툰을 연재 중이다. 기획 의도는?

여자 주인공은 이른바 '오타쿠'로 설정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오타쿠'의 세계가 웹툰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개그만화로 기획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지라는 포털의 특성상 독자층이 주로 중고등학생이고

그 중에서도 여성임을 감안해, 잘생긴 남자 주인공에 로맨스 요소를 가미했다.

Q. 웹툰을 제작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다보니, 영상이나 레이아웃과 같은 연출에 대한 고민이 많다. 예를 들면 대사가 들어가는 컷에는 앵글을 잡는 각도를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스토리의 개연성도 중요하다. 영화나 소설 등 모티브를 얻을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 스토리를 구체화해나간다. 한 화를 그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긴 편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컷을 여러 번 그려야하는 성격 탓이다. 매번 마감이 힘들어 시작을 후회한 적도 있지만, 다음 화를 더 잘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Q. 웹툰 작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리고 싶은 웹툰이 너무나도 많다. 그 중에서도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에 관심이 있다.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 사건 속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변화를 표현하는 웹툰을 그리고 싶다. 아직 웹툰 작가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최종적인 목표나 원대한 꿈은 없다.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겼고 또 대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현재 연재 중인 웹툰, 그리고 앞으로의 작품들에 몰두하고 싶다.

문자수 기자 answn15@hansung.ac.kr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제10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취지

1.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2. 지정 주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문제 해결 능력
3.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과 발표 능력 향상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지정 주제 (택 1)

1. 최근 들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고, '증강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자신의 전공 지식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시오.

2. 여행에 대한 다양한 유형과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공정 여행도 그 확산의 한 예이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자신만이 생각하는 공정여행의 개념을 설정해 보고,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공정여행 계획을 설계한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시오.

※ 자세한 내용은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대회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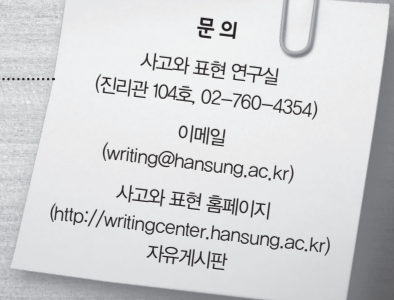
1. 접수 : 2016년 10월 31일(월) ~ 2016년 11월 11일(금)
2. 예선 :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4시~6시
3. 본선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 4시~7시 미래관 DLC

접수방법

1. 이메일 접수(writing@hansung.ac.kr) 및 방문접수 (진리관104호 사고와 표현 연구실)
 2. 신청서는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 및 안내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서 다운
 3. 팀으로 신청 가능(인원수 제한 없으며 발표자 2인 이상도 가능)
 4. 선착순 30팀으로 접수 제한
- ※ 대회 참가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출석 협조로 발급 가능

상금 및 비교과 포인트

- | | |
|---------|--------------------|
| 최우수상 1명 | - 상금 100만 원 / 100점 |
| 우수상 2명 | - 상금 각 20만 원 / 80점 |
| 장려상 5명 | - 상금 각 5만 원 / 60점 |
| 인기상 1명 | - 상금 5만 원 |
- ※ 예선 참여 40점, 단순 방청 5점
 ※ 인기상은 청중과 심사위원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 및 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을 기만한 나치의 선전 전략 "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도자"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나치 집권 당시 국민 계몽 선전부 장관이었던 괴울 요제프 괴벨스의 말이다. 그는 교묘한 선전 전략(Propaganda)으로 독일 국민들이 홀로코스트를 묵인하도록 조장했으며 광적인 애국심을 부추겨 패망이 분명한 전쟁터로 나가게 했다. 이러한 선전선동은 독일 대중들을 단 한사람, 히틀러에게 귀속시켰다. 이러한 천재적인 악마성 때문에 괴벨스는 현대의 악인으로 역사에 남았지만, 그가 행한 프로파간다만큼은 탁월한 전략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프로파간다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프로파간다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개념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프로파간다란 직간접적으로 선전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해낸 개념과 가치관을,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전파함

으로써,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해럴드 라스웰, 윌터 리프먼을 비롯한 많은 미국 사회 학자들은 '파편화되고 세분화된 대중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볼 때, 선전은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내는 기법이므로 사회 통제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프로파간다는 정의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프로파간다'가 무엇이라는 논란에 대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프로파간다의 특징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프로파간다 전파에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되어왔으며, 괴벨스가 행했던 선전 전략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프로파간다의 첫 번째 요소는 수사다. 이것은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기술'을 뜻한다. 뛰어난 수사는 인간의 이성보다 감성을 자극하며, 다양한 '은유'로 구성된다. 나치는 아리아인의 순수하고 위대한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

의 이미지를 수사에 이용했다. 사람들은 수사를 통해 대상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 독일인들 역시 나치의 수사를 보고, 아리아인의 울타리에 속해 있다는 강한 일체감을 느꼈다.

두 번째 요소는 신화다. 신화는 사회나 단체의 핵심 가치관을 표현하는 이야기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는 그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동질 의식을 불어넣는다. 신화가 프로파간다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괴벨스는 장신에 금발머리 그리고 육체적으로 뛰어난 아리아인의 신화를 차용해 히틀러의 민족주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활용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신화를 '창조'하는데 탁월했다. 나치가 집권하기 전, 공산당은 그들의 정적이었다. 따라서 공산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당시 나치의 목표였다. 나치당의 초기 멤버로 활동한 호르스트 베셀이

1930년 2월 독일 공산당 소속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살해당한다. 괴벨스는 그를 순교자의 표상으로 삼아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를 활용하여 대중들이 공산당을 '악'으로 인지하게끔 만들었다.

마지막 핵심 요소는 '상징'이다. 상징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들이는 노력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성공적인 상징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아, 오랫동안 그 의미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또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상징에 노출되면서 그것과 개인 간의 일치감을 느낀다. 나치가 국가적 주요 행사에서 나치당의 로고인 하켄크로이츠를 행사장 곳곳에 크게 배치한 것도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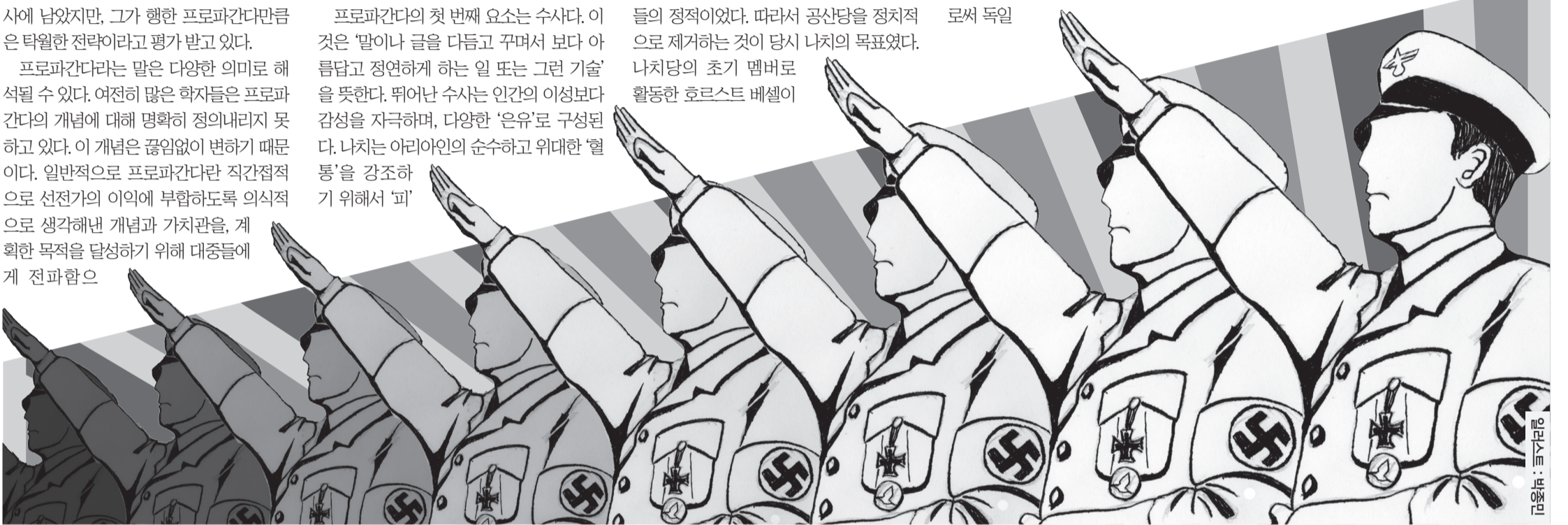
위와 같은 선전의 요소들을 통해 괴벨스와 나치는 독일 국민들에게 '조작과 기만' '사회적인 적'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였고, 전쟁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낙관적 생각을 하도록 조장했다. 독일 국민의 적을 유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독일

국민들에게 민족적 위기가 닥쳤음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패망이 눈앞에 다가왔던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독일 국민들에게 비밀 무기가 있다고 선전했다. 이렇게 두텁게 쌓인 거짓은 패전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괴벨스와 나치의 이러한 만행들은 인류사의 가장 커다란 비극을 만들었다. 국민들의 다양성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오로지 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도자만이 남았다. 독일은 다시 일어서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노력해야 했다. 그리고 그 상흔은 아직도 유럽 전역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파간다는 권력자에게 분명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프로파간다가 현대 사회에 다시 재입한다면, 인류의 역사에 또다시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것이다.

유동현 기자 ehdvki6392@naver.com



외국어 조기교육, 득(得)보다 실(失)? 실보다 득?

본성주의와 인지주의를 통해 본 아이의 언어발달

어린이의 언어습득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외국어 조기교육' 열풍이 이러한 언어습득능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교육방법이다. 그렇다면 왜 어린이의 언어습득 능력은 성인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걸까?

대략 2-3세 무렵에 인간의 뇌에서는 '언어 습득기제(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불리는 기제가 활성화된다. 이 기제는 자신이 노출된 환경에서 주어지는 언어 자극에 맞추어 해당 언어의 보편적인 문법을 추출해내는데, 이를 통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모국어의 문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가령 동사가 목적어보다 먼저 나오는 영어는 SVO 문법의 언어고,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한국어는 SOV 문법이다. 이 경우 동사

인 V가 매개변항이 되는데,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조사나 부사와 같은 다른 문법들을 본능적으로 추출해내는 것이다. 이 이론을 '본성론'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언어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이론이다.

'외국어 조기교육'은 이렇게 어린이의 언어습득기제가 활성화되고 있을 때, 외국어 자극을 줌으로써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닌 본능적으로 체득하는 것을 노리는 교육방법이다. 하지만 고창수(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교수는 이런 방식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역효과만 날 공산이 크다"고 답변했다.

원래 인간의 언어습득은 당시 노출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데, 너무 이른 시기의 인위적인 언어자극은 이러한 언어학습 환경에 혼란을 주기 때문이

다. 특히 이 인위적인 언어자극을 '학습'한 사람이 부모의 기대에 따라 '습득'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후에 유사자폐증에 가까운 질환에 처할 위험성도 있다.

만약 정말 아이의 언어능력을 위한다면 차라리 꾸준히 언어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의 언어자극에 따라서 걸보기엔 언뜻 비슷한 언어능력을 구사할지라도, 2-3세 때 이미 3배까지 언어능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통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언어자극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부모의 교육이나 어휘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보인다. 그에 비해 빈곤한 가정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맞벌이로 인한 언어자극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언어능력이 뒤떨어진다.

최근 학계에서는 '인지주의'라는 이론이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고 언어는 학습되는 것이다'라는 초기 경험론을 계승한 인지주의는 대부분의 맥락에서 본성론과 뜻을 같이하나, '언어가 태어난 순간부터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대답하고 있다. 고 교수는 이를 "스마트폰과 앱의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인간'이라는 스마트폰에서 '언어'라는 앱이 출고 당 시부터 존재하느냐, 아니면 따로 출고 후에 따로 설치가 되느냐의 차이이다.

이러한 언어이론은 언어학뿐만이 아닌 교육계와 심리학을 아우르는 학문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형 기자

ljh@hansung.ac.kr



▲ 2~3세의 아이는 언어습득기제를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

서평

생득론적 관점에서 본 언어학



언어본능 : 마음은 어떻게 언어를 만드는가

저자 : 스티븐 핑커
출판사 : 동녘사이언스
출판일 : 2008.12.20.
책소개 : 「언어본능」은 언어가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하며, 언어가 인간의 마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언어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례를 종합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타 주장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언어'이다. 등교 길에 듣는 노래 가사도, 친구와 하는 대화도 모두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성인이 왜 외국어를 배우기 어려운지, 왜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는지와 같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며 책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언어가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 즉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생득론적 입장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타 주장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자는 '츰스키' 문법의 복잡한 설계가 자연선택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 외에도 전 세계의 언어가 보편적인 특징을 가졌다는 사실과, 인간의 뇌 좌반구 중 전두엽 아래쪽 부위에 있는 일부 회로가 손상될 경우, 언어 장애를 겪는 사례 등을 통해 타 주장들을 반박한다.

이 책의 저자는 언어학을 모르는 일반인에게도 쉽게 이해되게끔 쓰려 노력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책은 언어학에 대해 생소한 독자들에게는 불친절하다. 방대한 양의 예문들이 제공되지만, 딱딱한

직역투의 번역은 독자가 예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독자는 원어의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원어를 모르는 독자의 경우는 이것조차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언어학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론 및 개념들이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등장하곤 한다. 책의 가장 뒷부분에 등장하는 용어설명만 단순히 용어만을 설명할 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전부 보충해주지는 못한다. 기본지식이 부족한 독자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생득론적 입장에서 타 생득론자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확장시켜 나가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저자는 수많은 실험 보고서부터 방송 녹취록, 평범한 사람들의 대화까지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활용해, 상세히 설명을 하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려운 도전이 되겠지만, 생득론적 입장의 언어학에 대해 심도 있는 지식을 원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1@naver.com

'록(Rock)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신' 등 이들을 위해 헌정된 단어들만 나열 해봐도 비틀즈(The Beatles)는 단순한 밴드 그 이상이다. 비틀즈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시대에서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경향도 한층 더 짙어지고 있다. 그들의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을 '거장의 이름으로 추앙한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록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도, 거장의 이름을 획득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다. 최근 개봉한 다큐영화 <비틀즈: 에잇 데이즈 어 위크(The Beatles: Eight Days a Week)>에서는 비틀즈의 행보와 각 멤버들의 활동 등을 아주 생생하게 담았다. 여기서 비틀즈의 모습은 순수한 청년들의 모습 그 자체다. 화면 어디서든 록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거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정말로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비상의 시작

1962년 어느 날 리버풀의 한 레코드 가게 사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레코드 가게에 들르는 주민들이 근처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알 수 없는 밴드의 레코드를 자꾸 찾았기 때문이다. 사장은 호기심에 이끌려 이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클럽을 찾았다. 클럽 안에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 소녀들로 가득했고, 무대엔 땀을 뻘뻘 흘리며 노래 부르는 청년들이 있었다.

공연을 다 본 레코드점 사장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가 본 밴드는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청년들에게 함께 사업할 것을 제안했다. 사장의 이름은 브라이언 엡

스타인(Brian Epstein), 청년들의 이름은 각각 존 레논(John Winston Lennon),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 그리고 폴 매카트니(James Paul McCartney)였다. 여기에 브라이언의 권유에 따라 리처드 스타키(Richard Starkey)가 합류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즈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브라이언의 도움으로 EMI 레코드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비틀즈는 순식간에 스타덤에 올랐다. 그들의 음악은 곧 리버풀 뿐 아니라 영국 전역을 열광시켰다. 그리고 미국까지 날아가게 되면서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이라 불리는 문화현상을 일으키게 되었다.

청춘의 에너지

사람들은 비틀즈가 대단한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이 남긴 300여 곡은 대중음악사에 '명곡'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처음 비틀즈가 보여준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들은 싱어송라이터의 이미지보다 아이돌의 이미지가 더 짙다. 당대에 야드버즈(Yardbirds)라는 밴드에서 활동했던 유명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Eric Patrick Clapton)은 클럽에서 봤던 비틀즈의 공연에 대해 "수많은 여자들이 둘러싸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미 비틀즈의 음악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분명 음악을 들으러 왔는데, 이걸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비틀즈에 대한 약간의 질투심이 느껴지는 인터뷰지만, 당시의 모습은 분명하게 와닿는다. 네 명의 싱그러운 청년들이 사랑한다는 가사를 미친 듯이 열창하고, 그에 화답하듯이 절규를 내뿜는 소녀들의 모습. 그것

그들이 정말 꿈꾸던 것들

이 비틀즈의 초기 모습이었다.

이전까지 팝음악의 기본 소양은 한 명의 메인보컬이 좋은 목소리로 대중들 앞에서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를 대표하던 프랭크 시나트라나 엘비스 프레슬리도 혼자 무대 위에 올라와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점잖은 목소리로 사랑을 선언했다. 그런데 비틀즈는 네 명이나 무대 위에 올라와서 사랑한다고 절규했다. 그리고 이따금씩 만들어내는 환호성 같은 화음은 소녀들을 미치게 했다. <Love me do>, <I want hold your hand> 같은 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사들도 아주 직설적이었다. 이런 새로운 스타일은 비틀즈라는 밴드를 순식간에 정상의 자리에 안착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비틀즈는 계속해서 곡을 만들고, 공연을 했다.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의 작곡능력 덕분에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곡이 만들어졌다. 비틀즈는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음악을 만들고, 언론 앞에서도 당당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단순한 음악인이 아니라 '청춘의 아이콘'이었다. 비틀즈는 멈추지 않는 청춘의 에너지로 60년대를 활활 불태웠다.

꺼져가는 불꽃 속에서

비틀즈의 음악이 생소한 사람들은 세상에 내놓은 수많은 명곡들과 음반들 때문에 비틀즈의 수명이 엄청 길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비틀즈는 고작

8년을 활동했을 뿐이다. 같은 때에 활동한 롤링스톤즈(The Rolling Stones) 같은 밴드들이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비틀즈의 생은 정말 짧게 느껴진다.

꽃은 아름다울 때 진다고 했단가? 미국에서의 순회공연에서 연일 동원 관객 기록을 갈아치우던 비틀즈는 관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지쳐가고 있었다. 어디를 가든 멤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내야 했다. 언론의 관심은 이 현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서' '언제 끝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을 달갑지 않게 여긴 기성세대들은 록 음악은 사회에 반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타지에 와서 인터뷰를 해도 밀리지 않는 자신만만한 태도 역시 그들에게는 거슬리는 행동일 뿐이었다. 특히 존 레논이 인터뷰에서 "비틀즈는 현재 예수보다 인기가 있다"는 발언을 꺼내면서, 반감은 더욱 확산되었다.

너무 과곤했던 것일까? 결국 비틀즈는 콘서트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콘서트를 할 수 없는 밴드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 비틀즈의 활동을 비판했던 기성세대와 언론들은 이것으로 비틀즈가 끝나라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꺼져가는 불꽃 속에서도 비틀즈는 새로운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그들은 수많은 관중들과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맘에 들지 않았을 뿐,

계속해서 자신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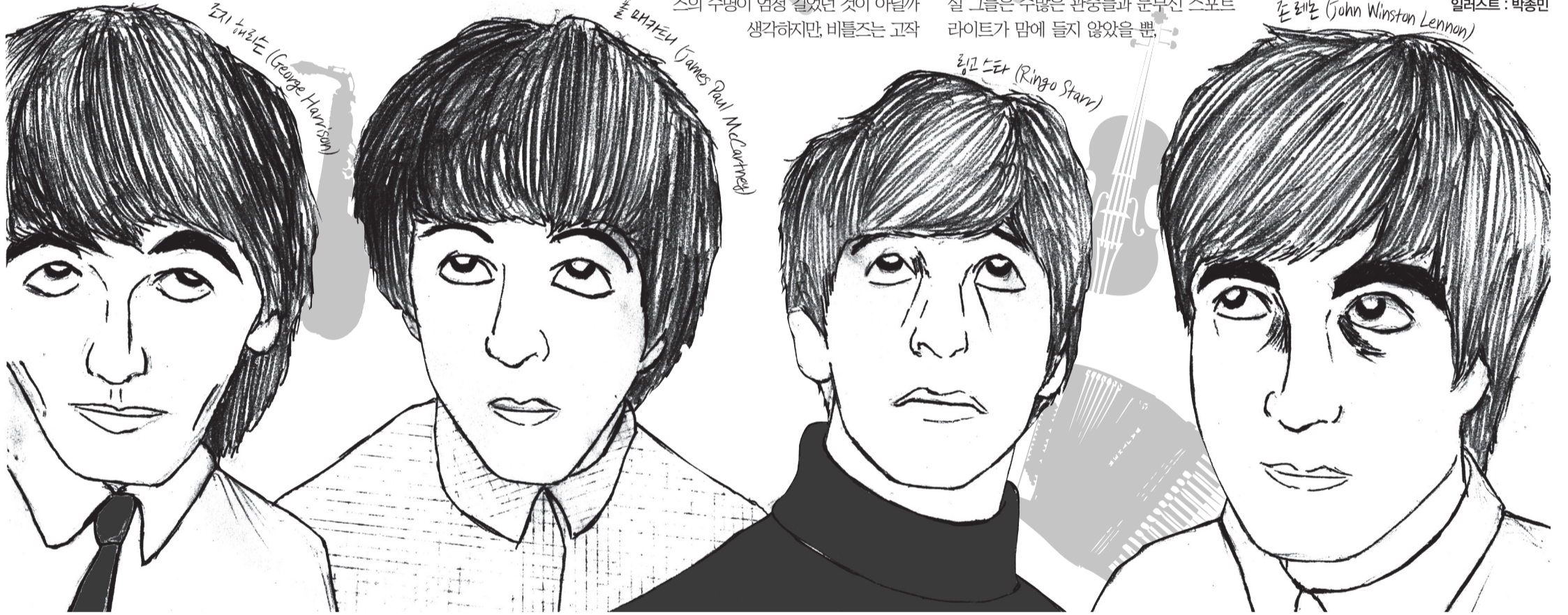
활동을 끝내기까지 4년 동안 비틀즈는 무려 5개의 앨범을 새로 내놓았다. 이 앨범의 곡들은 기존의 팝 음악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록(Rock)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신' 같은 별명들도 이때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본질은 거장의 출현이 아니라 네 명의 청년들이 지녔던 창조력과 표현의 욕구였다.

우리는 흔히 록음악을 저항의 음악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아버지라 불리는 비틀즈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 록음악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데 충실한 음악일 뿐이다. 비틀즈가 스러지고 네 명의 청년들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했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어쩌면 비틀즈가 진정으로 꿈꾸는 것은 멤버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고 싶은 노래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그 자체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이 다시 모이는 일은 없었다. 너무 많은 부와 관심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들의 음악을 스피커와 이어폰으로만 들어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지녔던 청춘의 에너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영원히.

박종민 기자 toad1013@naver.com

일러스트 : 박종민



WEBTOON INSIGHT

행복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보던 동화책은 '모두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결말로 막이 내린다. 계모와 새언니들에게 구박받던 신데렐라는 착한 요정과 멋진 왕자님을 만나 행복해졌고, 헨젤과 그레텔도 나쁜 마녀에게 도망쳐 행복하게 살았다. 현재 우리가 보는 영화 대부분의 결말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내재된 행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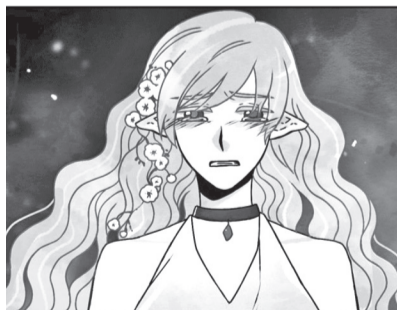
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항상 신기루처럼 존재해 왔을 뿐이다.

후은 작가의 숲 속의 미마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없이 시도하는 이야기이다. 웹툰 속 세계에서는 요정과 마법사, 평범한 사람들이 공존한다. 요정은 심장에서 마력을 만들어 내며, 마력이 허락하는 만큼 살아간다. 그 중 라빈은 무한한 마력을 지닌 요정의 왕이다. 반면 마법사는 마력의 제한을 받으며, 타고난 양의 마력을 다 쓰면 더 이상 마법을 쓰지 못한다. 그러나 미마는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의 자신을 마구잡이로 가져와 쓸 수 있는 마법을 사용한다. 오직 그만이 죽어도 죽지 않는, 마력에 제한이 없는 완벽한 마법사인 것이다.

한편, 일부 마법사들은 마력에 제한 없이 마법을 쓰고 싶다는 욕심으로, 다른 이



▲ 무한한 마력을 탐하는 마법사 '바스티아'



▲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라빈'

들을 희생시키려 한다. 라빈과 미마는 이로 인한 불행을 막기 위해, 그들을 제압하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한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할 때마다 미마는 모든 일이 생기기 전의 시간으로 되돌린다. 이에 대해 라빈은 분노하면서도 미마의 선택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돌아간 시간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 누구도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하며, 세상은 망가져간다.

라빈은 망가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시간을 마음대로 되돌린 미마가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미마를 죽이며, 자신이 미마를 말릴 수 있었음을 깨닫는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이 세상

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웹툰 속 라빈과 미마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고, 완벽하게 옳은 선택만을 추구한다. 여기서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 불완전하며, 수많은 인과법칙을 전부 예측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행복에 대한 자신의 노력이 전부 행복으로 환원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에 상관없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때, 우리는 불완전한 선택지에서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은강 기자 dbdmrsk73@naver.com

사진출처 : 네이버웹툰



▲ 완벽한 마법사 '미마'

의화정

학생들에게 IT 관련 전공을 강요하다보니, 얼리어답터는 아니지만 새로운 IT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구매 후 사용 후기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곤 한다. 스마트폰 다음으로 스마트워치 등의 웨어러블기기가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 전 SKT 인공지능 음성인식 디바이스인 NUGU를 TV CF에서 접하게 되었다. 음성 명령으로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하고, 날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알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장치였다.

궁금한 마음에 예약 구매를 신청했고, 몇 주 후 제품을 받아 거실에 설치하고 가족들과 테스트에 들어갔다. 음성인식기술이 과거

스마트 사물인터넷이 다가온다

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지만, 음성인식의 정확성과 유연성이 핵심인 이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개인적인 결론은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있지만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만한 제품이었다. 새로운 스마트 IT 기기가 내 주변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최근 IT 분야에서의 큰 관심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다. 이 기술들이 크게 각광 받고 있지만, 사실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의 수준과 사물인터넷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수요와 맞물려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우리 주변에 새롭게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서히 새로운 IT 환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우리의 삶은 일상 생활과 업무방식 모두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다가올 스마트 사물인터넷에 의해,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라지는 직업과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생과 교수자는 능동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교육 인프라도 이에 걸맞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노광현 교수(공과대학 IT응용시스템공학과)

삼학송

블랙홀이 지나간 자리에서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행성, 블랙홀. 태양계에는 없을 줄 알았던 이 블랙홀이 우리나라 한복판에, 그것도 정치권에서 등장했다. 국기문란, 헌정파괴 등의 단어가 난무하고, 온 나라가 상실감에 빠졌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까지 다 빨아들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난리 중에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까지 모두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학기 내내 미뤄졌던 2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위원회 구성 문제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학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내의 수많은 부분들을 고치고 바꿨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만큼, 고쳐야 할 범위가 넓고, 할 과제도 많았다. 이를 위해 1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학사구조개편, 장학제도정비, 학내시설물 정비 등등 다양한 분야에 손이 갔다. 물론,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을 모으고, 합의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결과도 나름 성공적이었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출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할 2기 위원회의 구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위원회는 단순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컨설팅 후속조치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제를 총괄하는 중요한 기구다. 후속과제의 단적인 예로 학사구조개편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 만약

남은 이번 2학기 동안에 2기 위원회가 서지 못한다면, 내년 신입생 학사일정, 트랙제도 정착 등 다양한 문제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현재 불완전한 정국에 따라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춘 2기 위원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물론 정국을 살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1기 위원회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행정조직을 빠르게 구성해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게다가 교육부가 2017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라 안에 생긴 커다란 블랙홀이 얼마나 더 커질지, 그에 따라 우리의 상실감이 얼마나 더 깊어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상실감에 온 정신을 다 뺏겨서는 안 된다. 2기 위원회 구성 문제처럼 학내 구성원들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혼란이 거셀수록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주변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학교나 책임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만약 이 혼란에 휩싸여 방심하고 안주한다면, 조유의 블랙홀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상실감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박종민 편집국장

기자수첩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미운 오리 새끼이다.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고작 6030원에, 방학내내 영어학원과 자격증 취득에 매달려도 취업은 바늘구멍에 낙타가 지나가는 꼴이다. 국회에는 실현될지조차 미지수인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난무했고, 정부는 한 없이 높은 등록금은 외면한 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췄다고 생색을 냈다. 이러한 바쁜 삶의 틈바구니에서 한숨이라도 쉬려고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업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일쑤다. 청년수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다수의 기득권자들은 헬기왕성할 때 고생도 해보는 거라며 탐탁지 않은 반응들이었다.

여지껏 나는 청년들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기를 자처했다고 생각했다. 이 시대의 모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가 될 수 있을까

든 청년들이 투표일은 곧 공휴일이라 여기고, 사회문제는 나와 관련 없는 것이며, 당장의 취업, 스펙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6개월간 사회면 기사를 취재하면서 이 생각이 누군가 정립해놓은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년들이 사회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사회가 청년들에게 무관심한 것이었다. 그들은 끊임 없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청년들은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을 쏟아냈다. 청년 일자리 정책 취재 중 청년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필요하며, 우리 스스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수당 취재를 통해서 청년들이 그들의 손익만을 고려해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청년과 더불어 기득권자들이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누군가에게는 미운 오리 새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렇게 백조가 될 날갯짓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자들은 닫힌 귀를 열지 않은 채, 이 사회의 문제를 청년에게 떠넘겼다. 청년 스스로 ‘우리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사회 곳곳에는 나름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이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 청년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이 사회의 백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문지수 기자

낙산에 올라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에 각 학교들에서는 시국선언을 통해 헌 정부에 대한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오후 4시, 드디어 우리학교에서도 총학생회의 주도하에 시국선언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막상 시국선언을 했던 창의관 앞은, 당일의 쌀쌀한 날씨가 더욱 절망하게 느껴질 만큼 적은 인원수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시국선언의 그 숭고한 뜻을 깎아내릴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매우 적은 인원에 놀라고 말았다. 허탈한 마음에 주변 학우들에게 왜 오지 않았는지 질타했다. 그러자 돌아오는 답이 더욱 의아했다. “오늘 시국선언 날이예요? 오늘 몇 시에 하는데요?”

처음 시국선언에 대한 글을 본 것은, 28

학생들은 모르는 시국선언

일에 낙산의 메아리에 올라온 게시글이었다. 해당 글에는 언제 진행하는지 시간조차 적혀있지 않았다.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메일을 보내고, 30일 오후 2시 38분이 되어서야, 시국선언 행사의 정확한 시간과 함께 낙산의 메아리 공지에도 시간을 추가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행사 시작까지 겨우 하루하고 1시간 정도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수업을 위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해당 행사에 대한 어떠한 글도 볼 수 없었다. 탐구관 입구 오른쪽의 게시판에는 시국선언문이 붙어있었지만, 작은 글씨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위치 때문인지, 해당 게시문이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여럿 되었다.

총학생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명확한 시간이 표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부가적인 수단일 뿐, 권위 있고 필수적

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전교생이 총학생회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회는 오프라인 상에서도 충분한 홍보를 진행했어야만 했다. 게시글은 과내 MT 홍보 게시글보다 가시성이 떨어졌고, 위치선정이 올바르지 못했다. 학생회장 선거철의 그 수많은 팜플렛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시국선언을 진행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왕 할 것이라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를 해달라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이번 시국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다음 행보에서는 이러한 실수들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더 나은 시국선언이 되길 바란다.

박수홍(국문 4)

낙산만평

박종민(국문 3)





무한 상상력 발견!

꿈과 능력을 세계로 펼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성공 스토리를 위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 보이세요!

http://gs.hansung.ac.kr

2017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대학원구분	학위명	대학원명	문의처
일반(주간)	박사	일반대학원(박사)	(02)760-4271
	석사	일반대학원(석사)	
특수(야간)	석사	경영대학원	(02)760-5844
		행정대학원	(02)760-5845
		예술대학원	(02)760-5970
		국립과학대학원	(02)760-4318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02)760-5987
		부동산대학원	(02)760-5876
		교육대학원	(02)760-5878

원서접수 및 발표
 | 원서접수기간 | 2016.11.21(월) 10:00 ~ 11.28(월) 22:00
 | 접수 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 어플라이(http://uwayapply.com) 인터넷 접수
 | 면접 전형일 | 2016.12.3(토) 10:00 ~ (학과별 변동 가능)
 | 합격 발표 | 2016.12.16(금) 오후예정(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6) 서울시 성북구 성신교로 16길 116



▲ 동아리 부스에서 'NSND캠퍼스'는 'No Smoking No Drinking' 캠페인을 벌였다. 취재차 부스를 방문한 기자는 술취에 좋은 핫게수차를 '특별'했다.



▲ 사이먼 도미닉, 삼자신 민경훈, 더 하이니, 불발탄사춘기, 박보람이 초대 가수로 공연을 했다. 특히 사이먼 도미닉은 학생들이 절제 팬스를 취재 할 정도로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었다.



▲ '낙산가요제(주최: 한성대방송국)'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장민석(부영4) 학생이 자작곡 '이플개보'로 우승을 차지했다. 장민석 학생은 낙산가요제 외에도 축제기간 동안 진리관 앞에서 버스킹 공연을 했다.



▲ 이번 대동제에는 처음으로 푸드트럭이 들어왔다. 축제 내내 푸드트럭 앞에는 줄이 길게 이어졌다. 특히 스테이크가 가장 인기를 끌었다. 기자들도 취재를 마치고, 스테이크에 맥주 한 잔을 곁들였다.

2016학년도 대동제

2016년도 대동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동제는 학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축제의 뜨거운 열기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생생한 모습을 이번 기획에 담아보았다.



▲ 상상관 강의실에서는 관객은 작가의 '연애특감'이 있었대. 특감을 들은 익명의 학생은 "오늘도 연애를 글로 배운다"며 겸연쩍게 소감을 밝혔다.



▲ 낙산가요제 초대가수 더 잘생겼다.



▲ 상상관 농구코트에서는 클럽퍼퍼가 열렸다. 학교에 숨은 클럽버들 이 학생이 퍼퍼를 즐겼다. 취재기자의 심장을 바운스하게 만들 정도로 클럽 앞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 거리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학생의 모습



▲ 학내 곳곳에 설치된 부스에서는 '롤리마켓'이 열렸다. 에코백, 엽서, 스터더, 하이포 문구, 수제 약세시리 등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유니크한 상품들이 판매되었다.



▲ 축제 1일차 저녁에는 풍물동아리 '탈패', 오케스트라동아리 '한음', 연극동아리 '낙산극회' 밴드동아리 'N.O.D', 밴드동아리 '돌불', '황산양(사지)' 등 여러 동아리의 멋진 공연이 이어졌다.